

11/23/99 (화)  
김우성

# “징용피해자 손해배상 미국내 관심이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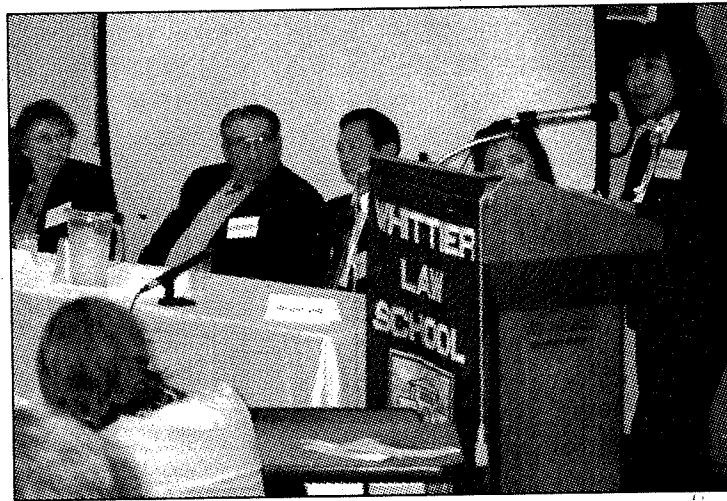
## 일제 전범처벌 심포지엄서 학자등 지적

한인 징용피해자들의 일본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의 처벌과 관련한 심포지엄이 21일 워디어 법대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인 학자 및 변호사들을 포함, 주류사회의 정치인·법조인·학자·언론인·민권운동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심포지엄의 꽃은 한인·유대인 등 일본과 나치독일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피해자측 변호사들이 밝힌 소송의 문제점과 전망 부문. 특히 한일기본협약과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결립들을 어떻게 넘느냐 하는 문제가 「국가간 조약이 개인의 민간회사에 대한 청구권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소송이 시



박계영 교수가 정신대의 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의 관심과 미국의 선택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데 대체로 같은 입장을 보였다.

심포지엄은 종전후 있었던 일본 및 나치독일 전범재판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물 관람을 통해 나치 전범에 비해 일본 전범이 「관대하게」 처벌된 역사를

다시 짚어봄으로써 일본 전쟁범죄 처벌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영화 관람후 였은 심포지엄 1부에서는 박계영 교수(UCLA·문화인류학)를 비롯한 학자들이 전쟁범죄 및 그 처벌 실태를 발표하고 당시 일본군에 포로로

잡혀 징용에 처해졌던 민간인 및 민간인 포로가 나사의 현장을 생생히 증언했다. 박 교수는 「정신대 파들의 기대여명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조속히 문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마이클 혼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민·센호제)은 「선대의 갈등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오늘날 캘리포니아내 아태커뮤니티의 관계까지도 구속하고 있다」면서 「일본 총리나 각료가 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피해당사국에 사과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보상과 함께 일본 정부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한 마이클 베이즐러 워디어법대 교수는 「한국인 징용피해자가 150~600만명이나 된다니 어떻게 이런 사실이 아직도 역사속에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 한인 정재원 씨와 일본회사 사이에 진행되는 소송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미국의 대표적 민권변호사 배리 피셔, 중국계 민권운동가 이나셔스 당을 포함한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과 고희식·한태호·신혜원·강준모·제프리 스프링·마이클 골드버그 등 한인징용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인 및 미국 변호사도 참석했다.

〈한우성 기자〉